백금남 소설 **아디카야의 검** 10



▶한줄요약
조실스님과 시자는 화재 현장에서 불에 탄 시체 두 구와 타다만 그림들을 발견한다. 그림 속에는 금어스님의 아들이 그려져 있었다.

불에 탄 그림에 금어스님 아들 얼굴이…

뉴델리에서 며칠 ①

어머니가 그렇게 맹목적인 사랑을 아버지에게 주었듯이 종교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다. 불교도나 기독교인이나 반목할 이유가 없었다. '하느님이시여, 그리스도여, 어린양을 지켜주소서.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들의 그런 신앙이 어머니의 맹목적 사랑과 무엇이 다른가. 어머니의 믿음, 그리고 기도, 그것은 신앙이 되었고 구원이 되었다. 어머니의 구원은 어머니 자신의 것이기도 하지만 아버지의 구원이기도 했다. 그러므로 그것이 무슨 신앙이냐고 탓할 이유가 없다. 그런 면에서 불교의 신앙화는 뜻깊다. 극락과 지옥, 윤회 등…. 그런 굴레를 만들게 된 것이 바로 신앙의 힘이기 때문이다. 분명히 신앙과 수행은 다르다. 신앙은 믿음이고 수행은 공부다. 신앙은 '이게 무엇인가' 가 필요 없다. 신앙은 무조건 믿고 들어가야 한다. 천당이 있습니까? 지옥이 있습니까?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없다. 그들에게 있어서의 진리란 오로지 믿음이다. 반면에 불교는 '이게 무엇인가?' 란 물음으로부터 시작한다. 당연히 극락이 있는가? 지옥이 있는가? 물을 수 있다. 있다고 믿고 들어가면 신앙이 되고 공부하면 철학이 된다. 석가모니 붓다는 그 대답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평소에 윤회를 설하고 극락과 지옥을 설하다가도 정작 질문하면 침묵한다. 그럼 침묵이 진리인가? 아니다. 진리는 말로 설명될 것이 아니다. 진리는 형상이 없다. 그러므로 형용하여질 물질이 아니다. 석가모니 붓다가 대가섭에게 법을 전할 때 언어도단(言語道斷), 불립문자(不立文字), 심행처멸(心行處滅)이라고 했다. 이 말은 진리는 깊고도 묘하여 말할 수도, 생각할 수도 없다는 말이다. 말길이 끊어졌기에 말할 수 없고, 마음으로 미칠 것이 아니기에 생각이 멸하였다는 말이다. 노자는 이 대목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 도라고 할 수 있으면 도가 아니다. 이름 붙일 수 있는 이름은 이름이 아니다. (道可道, 非常道, 名可名, 非常名.) 도를 도라고 할 때 그것은 진정한 도가 아니라는 말이다. 욕심과 노여움과 어리석음(貪瞋痴)으로 뭉친 사람이 파악한 도 즉 진리는 참된 진리가 아니라는 말이다.

그렇다면 이미 대답은 나와 있다. 석가모니 붓다의 침묵, 그 침묵 위에 대답이 있다는 말이다. 그 대답이 진리의 모습이다.

그럼 맹목적의 신앙도 종교로 인정되어야 하고, 연기(緣起;모든 현상은 독립, 자존적인 것은 없다. 모든 조건과 원인이 없으면 결과도 없다)에 근거를 둔 불교 철학도 종교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 두 세계. 그 두 세계는 진리의 모습을 찾아가는 방법이 다르지만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 이로써 증명된다. 하나의 길은 믿음으로 사랑을 얻어내고, 하나의 길은 물음으로 자비를 얻어낸다. 그 둘이 하나가 될 터전을 짓고 싶었다. 그리하여 어머니와 아버지가 함께 머무는 공간을 짓고 싶었다.

조실이 걸음을 멈추자 시자가 왜요? 하는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다가 손으로 입과 코를 막았다. 모든 것이 새카맸다. 열기에 푸석해져 허물어진 회벽이 그래서 더 섬뜩했다. 다 타버린 공간에 그것만이 살아남은 것 같았다. 그 아래 나자빠진 것은 분명히 불에 타다만 시체였다.

시체는 두 구였다. 타다만 시신들이라 나이를 가늠할 수가 없었다. 머리가 홀랑 타버렸고 걸친 옷도 타다 말아 겨우 남자와 여자라는 걸 알 수 있을 정도였다.

불에 타다 만 남자 시체의 눈에서 이상하게 흰즙이 흘러나와 있었다. 입을 꽉 다물고 있었고 오른쪽 어깨뼈가 드러나 있었다. 어깨뼈 자리(견갑)와 오른쪽 겨드랑이가 그래서 함정처럼 깊어 보였다. 어깨에서 팔꿈치로 이어지는 곳에 뼈만 겨우 붙은 왼손이 얹혀 있었다. 오른발이 오른편 엉덩이에 깔려 있어 넘어지면서 다리가 뒤틀린 것 같았다. 여인의 시체는 더 참혹했다. 하복부가 불에 타 불에 굽다만 생선 속을 보는 것 같았다. 이상하게 오른발에 양말이 신겨져 있었는데 엄지발가락만 탔고 네 개의 발가락은 멀쩡했다. 불타버린 방 이곳저곳을 둘러보다가 타다만 그림 한 점에 시선이 멎었다. 나무로 짠 틀 같았다. 틀에 비단이지 싶은 천이 물려 있었고 그것은 타다 말고 처박히듯 한 쪽 구석으로 자빠져 있었다. 시자가 그걸 보고 겁도 없이 다가가 허리를 구부리고 요리조리 살폈다. 조실이 다가가자 어떻게 그림을 내려다봐야 할지 시자는 헷갈린다는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뭐지?

조실이 좀 겁먹은 음성으로 시자에게 물었다.

-탱화 같은데요.

-탱화? 그림?

이지안 스님의 모습이 뇌리를 스쳤다. 조실은 타다만 그림을 내려다보았다. 그제야 그림을 살펴보며 고개를 갸웃거리던 시자가 이해되었다. 단일한 색상이 아니라 여러 색이 혼합되어 있어서 정교하기보다는 붓놀림이 거칠었다. 그림을 어떤 각도에서 보아야 할지 잘 가늠이 되지 않았다. 자세히 보니 사람 얼굴이었다. 그림을 집어 볼 수는 없는 일이라 바짝 다가들어 보았다. 사람 얼굴이 분명했다. 사람 얼굴이긴 한데 머리카락이 길었다. 그래서 더 이상하게 보였던 모양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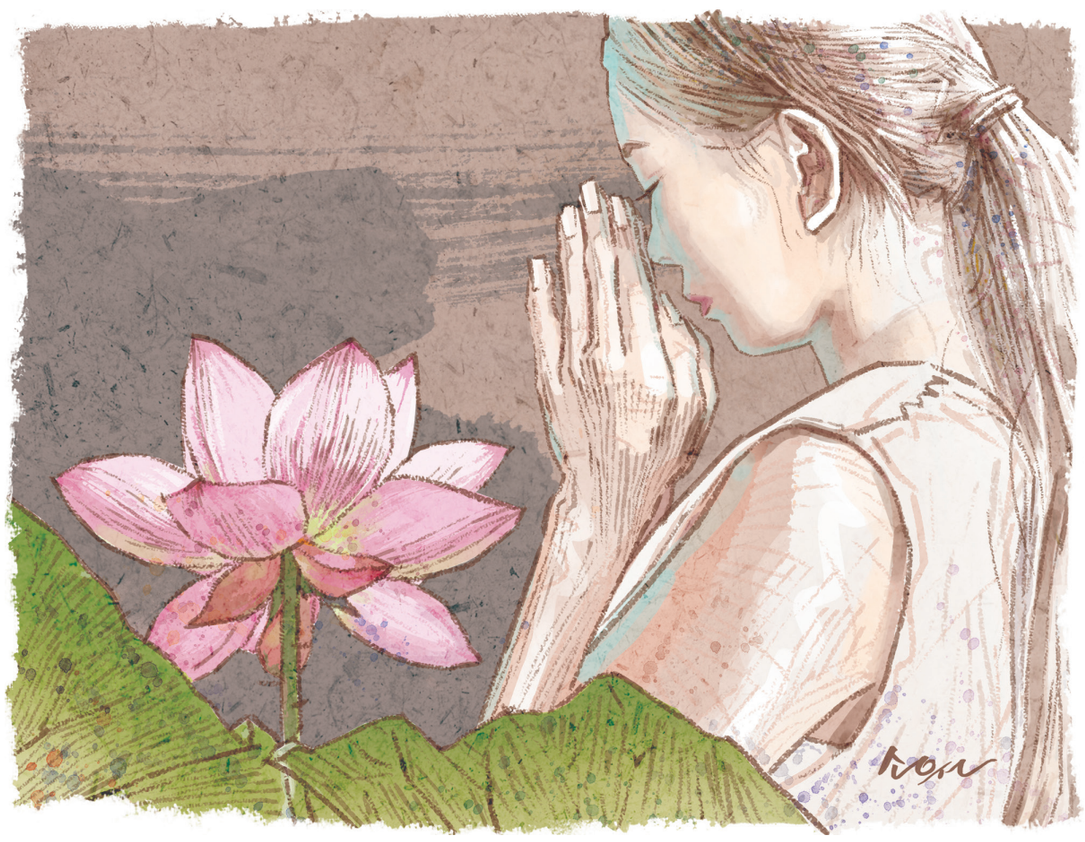
-남자 얼굴인데요.

시자가 말했다.

넓은 이마. 큰 눈. 동근 얼굴이 타다가 말아 반 정도 보였는데 그나마 검게 그을려 있었다.

-부처님은 아닌 것 같구나.

-머릴 기른 스님 같은데요. 여기 목을 보십시오. 분명히 승복 아닙니까?



-그러네. 승복이네. 어? 그러고 보니 이 사람….

분명히 어디선가 본 얼굴이었다. 지안 스님의 아들 이석원이라는 생각이 뒤이어 들었다.

-이석원?

조실이 뇌까리자 시자가 눈을 크게 떴다.

-아! 금어스님 아드님 얼굴! 맞습니다!

오른쪽 얼굴 반쪽이 타 버렸지만, 분명히 이석원이었다. 머리가 길고 승복을 걸치고 다니던 이석원.

그런데 이상하다. 한 손에 든 것이 무엇일까?

쇠꼬챙이 같았다. 그런데 그슬려서 뭐가 뭔지 모르겠다. 언뜻 보아선 쇠꼬챙이 같지도 않았다. 여자들이 어깨에 걸치는 긴 스카프가 손목까지 내려온 것 같기도 하고 인도의 사리 같기도 했다. 여자의 팔 같긴 했는데 무엇인가 날카로운 쇠붙이 같은 것이 불거진 모습이었다. 너무 말라 오히려 흉측해 보이는 모습이었다. 그래서인지 이석원의 얼굴이 달덩이처럼 보였다.

-그슬려서 무엇인지 모르겠네. 긴 끈 같기도 하고…?

-타버린 팔의 뼈 같기도 해요.

-감을 잡을 수가 없네? 사람 팔 같긴 한데….

거참 하면서 다시 주위를 둘러보았더니 대부분의 다른 그림들은 다 타버린 것 같았다. 탱화 틀이타 그대로 숯이 되어버린 모습도 보였다.

그러다 타다만 탱화에서 이석원이 들고 있는 문제의 사람 팔을 닮은 물건이 무엇인지 알아내었다. 그것은 칼이었다. 칼이 타다가 그슬려 그렇게 보였던 모양이었다. 타다가 만 탱화의 칼. 긴 장검이었다. 그것의 모습이 현란했다. 칼의 본체에 문양이 그려져 있었는데 그 현란한 색상이 그슬려 꼭 사람의 팔뼈처럼 보였던 것이다. 살점이 타다가 만 것 같은…. 칼만 그려대더니 그 잔재가 두어 점 타다가 남은 것 같았다.

조실은 현장을 빠져나와 경찰에 신고했는데 이미 신고가 되어 있었다. 소방차가 뒤늦게 출동했는데 이미 불이 꺼졌더라고 했다. 천추사원에서 여러 스님이 나와 불을 껐다는 것이다. 그러고 보니 시내에서 곧바로 암자로 오는 바람에 그랬구나 하는 생각이 그제야 들었다. 천추사원으로 가는 길목에 가게가 있었다. 암자에서 그리 멀지 않은 가게였다. 목도 마르고 해서 시자와 들어갔다. 오십대의 뚱뚱한 몸을 가진 가게 주인 여자가 그들을 맞았다. 어떻게나 살이 쪘는지 얼굴이 부푼 빵을 연상시켰다. 그래서인지 콧등이 더 낮아 보였다. 눈이 실처럼 가늘고 길었다. 곁에 남편이란 작자가 앉아 있었는데 콧수염을 길렀다. 기르고 있었다. 여우처럼 하관이 빠진 전형적인 늙은 여우상이었다.

-아이고, 한국 사람인 거 보니 암자 스님 찾아오싯구만. 그 암자 불타 버릿는디….

그녀가 금어가 거처하던 암자가 천추사원의 말사임을 모르고 보면 그럴 만도 했다. 그 암자의 조실임을 모르고 보면 암자의 스님을 찾아왔다고 생각하는 것이 분명했다. 시자가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을 조실이 말렸다. 시자가 물 한 병을 사고 값을 치르고 있는데 콧수염과 수염이 더부룩한 사내 둘이 들어섰다. 눈길이 예사롭지 않았다. 조실은 가게를 나오려다가 가림막 뒤로 물러섰다. 시자가 사내들을 살피다가 그도 눈치를 챘는지 조실 뒤에 붙어 섰다. 그들이 가게를 빠져나갔다고 생각한 주인 여자가 들어온 사내들을 향해 상냥하게 맞았다.

-뭘 드릴까요?

-뭐 좀 물어보려고 왔시다.

키가 좀 큰 사내가 말했다. 콧수염 끝을 창날처럼 말아 세웠다.

-뭘요?

-요 위 불난 집 말이오?

-불난 집? 아 한국 사람들이 사는 암자?

-맞소. 거기 살던 사람들 알고 있소?

-어디서 나왔소? 형사요?

조실이 가림막 틈새로 얼핏 눈길을 주었더니 수염을 말아 세운 사내가 주머니에서 신분증을 꺼내 보였다.

-아이고 형사시네.

-그러니 협조 좀 해주시오. 길목 가게이니 그 사람들 알 것 아니요?

가게 주인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지만 알고말고요.

그러고 보니 경찰서에서 탐문수사를 나온 것이 분명했다. 조실은 시자를 데리고 그냥 가게를 나와 버리려다가 가림막 저쪽으로 가 섰다. 그들이 형사가 틀림없다면 불이 난 이유를 조사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고 천추사원과 무관치 않은 일이고 보면 그냥 발길을 옮겨버릴 수가 없었다.

-거기 살던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었소?

앞장선 사내의 음성이 들려왔다.

-음 그러니까 내가 알기에 부처 얼굴 그리는 사람이었시우.

주인여자가 대답했다.

-부처 얼굴?

주인여자의 말이 낯선지 사내가 되물었다. 그러다가 탱화를 떠올렸는지 아하 하는 표정이 가림막 틈새로 보였다.

-사찰에 가면 있는 부처그림 말이오?

-맞구먼요.

순간적으로 그렇구나 하는 기운이 사내들의 얼굴에 흘렀다.

수염을 꼬아 세운 사내가 손바닥만 한 수첩을 주머니에서 꺼냈다. 그는 가게 주인여자가 가르쳐주는 대로 적기 시작했다.

-죽은 사람들 통 나이를 가늠할 수가 없던데…?

수첩에 글을 쓰다 말고 사내가 혼잣말처럼 물었다.〈계속〉

제38기 한마음공생실천과정 모집안내



한마음공생실천과정은
생활 속 관법 실천과
마음공부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프로그램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다가오는
것들을 마음공부의 재료로
삼아 긍정적으로 재입력하는
연습을 통해 나와 내 주변을
바꾸어 가는 생활 속
참선수행 프로그램입니다.

대 상 : 마음공부를 하고자 하는 분 누구나
기 간 : 4월 1일(토)~5월 27일(토)
9주 매주(토)
시 간 :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30분~5시 30분
장 소 : 한마음과학원 3층 국제회의실
모집인원 : 총 50명 선착순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 -함께하는 전화
edu.hansi.org
수 강 료 : 이십만원
(국민 292-01-0033-316) (재)한마음선원
전화문의 : (031) 470-3200, 3198

(재)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온라인신청 바로가기